

제 119 호

사순 제 4 주일

1975. 3. 9.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 강론 □

해가 있는 동안에 일하라

서석구 신부

오늘 사순 제4주일 복음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길을 가시다가 눈 먼 맹인을 만났습니다.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자기의 탓도 아니고, 자기의 부모의 탓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 사람에게서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것없이 인생이라는 길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동안에 태중소경과 같이 질병으로, 무지로, 빈궁으로, 죄악으로 여러가지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서는 그 불행중에서 건지시는 것이 그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회에 여러가지 불행한 일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해 정당한 정치 참여나 기타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태중소경을 통해 하느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태중소경을 보시고 당신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며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할 수 있는 낮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해가 있을 때에 일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해가 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할 시기와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해가 떠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일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계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당신께서는 그 어두운 십자가의 밤을 기다리면서 고통과 번민속에 기도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맹인이 빛을 보게 된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사순절동안을 뜻있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진안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 **입당송**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그를 사랑하는 자 모두들 모여라. 슬픔에 잠겼던 너희 즐거움에 넘치며, 뛰놀며 그 위로의 젖을 흠뻑 마셔라.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사무엘전서 16: 1b. 6-7. 10-13a.)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바르다.

□ **창계송** ①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나를 뒤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②

□ **제2독서** (에페소 5: 8-14, 성서 P 444)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 나를 비추시리라.

□ **복음 전 노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생명의 빛을 보리라.

□ **복음** (요한 9: 1-41 성서 P 228)

가서 씻고 돌아올 때 보게 되었다.

□ 신자들의 기도

1. "교구의 심장"인 신학교로 신학생들을 다시 불러들이신 하느님, 신학생들이 장차 짊어질 중대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에 전념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하신 하느님, 우리들도 당신을 더욱 잘 알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 우리보다 먼저 우리 형제들을 당신을 뵈을 수 있는 길로 불러주신 하느님, 그들이 당신을 면대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외에도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점에서 부족한 우리들때문이라 아니라 당신의 크나큰 사랑과 자비로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3) 성찬의 전례 □ 봉헌 □ 성찬식

□ **영성체송** 주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 하느님을 믿었노라.

* 순정이 산책 *



참고 넘어갑시다.

십자가의 길 (3)



- 제11처 악당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음을 묵상합니다.
- 제12처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의 성시를 십자가에서 내리움을 묵상합니다.
- 제14처 예수,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한 상 갑

우리들은 흐린 날씨를 싫어합니다. 맑은 날씨만이 계속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당신의 섭리(攝理)는 실로 놀랍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명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바로 볼 수 있게 말입니다.

13. 성시(聖屍)를 십자가에서 내림

당신의 싸늘한 시체를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당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을 당신은 일찌기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 아래에 서신 당신의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람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요”(요한 19:27)라고. 우리는 어머니의 바다같은 사랑을 잘 압니다. 누구나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어머니인 여성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성이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 남성을 여성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어머니의 덕성과 아름다움을 잃지않는다면 세상은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있는 오늘의 이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은 모두 사라지고 거의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들만 그 고통스러운 짐을 지어야 하느냐고 말할지도요.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에 여성에게 기대를 겁니다.

당신 어머니의 덕성을 오늘의 여성들에게 심어 주소서 정결하신 당신 어머니는 방 하나 열지못한채 당신을 낳으셨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피난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신 당신을 따르셨습니다.

14. 무덤에 묻히신 예수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당신의 일생에 대한 인간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육중한 돌무덤을 깨치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영성체마다 당신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마치 돌무덤에 당신을 묻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우리 마음에 모심보다는,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신을 담은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용기를 주소서. 진리와 정의를 둘러싸고 있는 돌무덤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말입니다.

11.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주여, 당신은 기어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커다란 죄(우리들의 죄악)이 당신의 손바닥과 발등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뼈들이 바스라지고, 피가 흐르고, 살점이 이그러지는 고통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알몸이라는 부끄러움 정도는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인사를 골잡 합니다. “염려해주신 덕택에 일이 잘되어 감사합니다”라고. 저희를 덕택에(?) 당신은 얼마나 고초스러우십니까. 주여? 지금도 저희들 덕택에(?) 당신은 고통을 당하고 제십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의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잘못 따위는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오직 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마음은 완악(頑惡)하기만 합니다.

녹여 주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줄 알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직도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덕택에 평화를 맛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말입니다

12.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로마 제국의 노예들 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당신은 “이제 다 끝났다!”(요한 19:30) 하시고 고개를 떨구어리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자,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마르코 15:39)고 당신을 알아 보았습니다.

당신은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사람들을 용서하여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루가 23:34)라고 우리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사느냐?”는 물음에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간다는 일이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항상 맑은 날씨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농사조차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칠·도장청부
대 통
지을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남학생 교복(에리트)
모자, 모표, 학년표, 카라
송약국
부활상회
전주시 전동, 매곡교사거리
주원배(실베들)아침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로리아노)
육교길 구 부부배차장 옆
전화 6544

한국 천주교 주교단 메시지

친애하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 여러분에게

1974년 7월 23일부터 영어의 몸이 되었던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님이 지난 2월 15일에 때법원의 구속정지로 자유의 몸이 되셔서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돌아 오시고 함께 구속되었던 많은 인사들이 석방된데 대하여, 우리 주교단은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교회는 항상 고통받는 이들과 더불어 그 고통을 나누며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여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동안 지주교님을 비롯하여 함께 구속된 학생, 교수 및 일반인사들의 고통을 나누며 그들의 기본권 보장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온 교회가 구속자들의 석방과 인권보장을 위해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비상조치법을 폐지하고, 구속인사들을 석방하고, 폭넓은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태에 대처할 자세를 정립함으로써, 교회안의 일치를 도모하고, 외부로부터의 오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고통받는 이들과,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복음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비난하거나 고발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오직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겸손된 기도의 모습을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2. 부정부패, 사회 부조리, 인권 유린등을 고발하는 교회의 발언권은 계속 행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 질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교황청과 각국 주교회의 안에 정의 평화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이 공식기구에 가입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정치 활동과 엄격히 구별되는 교회 고유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3. 고통받는 형제들을 도와주며 사회질서를 개선하는 교회의 사명수행은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제휴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겠으나, 정치 질서나 정치 분야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외부의 정치세력과 제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정치문제에 관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모든 정치세력에 관계되는 것이며 정권의 형태나 지역과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모든 정치세력에서 초연한 입장에서 있어야 합니다.

4. 다수 정치단체가 허용되는 지역에 있어서 신자 각자는 자기 양심에 따라 어떤 정치단체든지 자유로이 선택하여 시민의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식 기구로서는 평신자 단체도 특정 정치 단체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이상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교회 고유의 사명인 인간 구원에 헌신하는 한편, 현재 질서에도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국가와 민족의 진정한 행복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화해의 성년을 맞이하여 교황 성하의 소망대로 한국 주교단도 모든 석방인사들과 억울한 미 석방자들의 사면을 희망하며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시국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정부와 국민과의 불신은 솔직 담백한 대화로써 씻어버리고, 정부와 국민의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975년 2월 28일 춘계 총회를 마치고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요심이 (85) 김병오



□신간안내□

십자가의 길
(토성선공) 170원

갈매기의 집
580원

너는 병어리와 버림받은 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너의 입을 열어라.

너는 입을 열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며 불행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여 주라.

(잠언 31:8-9)

현대 광고사

*아크릴, 각종간판, 아취, 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 카메라수리

송홍섭(토마스)

전화 ② 9431

삼남극 장과 전북신문사 비거리 중간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②4577)

☆교우들의 집☆

영명 T.V 수리센터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출장비 무료

유원상(돈보스코)

전주 동부시장통 (전화 ②913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 1회 전주 교구 교리 경시 대회에 897명 응시, 1위에 중학교 유점자(98점) 고등학교 김의철(98점) 교구 사목협의회 교육분과 위원회가 주관한 제1회 전주교구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에는 교구내 29분당에서 897명이 응시하여 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상 (중학교) 1위: 창인동, 2위: 임실, 3위: 수류, (고등학교) 1위: 함열, 2위: 대야, 3위: 월명
참가상 (중학교) 1위: 남원, 2위: 둔율, 3위: 고산, (고등학교) 1위: 둔율, 2위: 김제, 3위: 화산
2. 전주 교구 중·고등 연합회 정기 총회 개최 1975. 3. 16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회비 300원, 각 분당 중·고등 학생회 임원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3. 중·고등 연합회 교리 경시대회 시상날짜: 3월 16일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4. 제 1차 전주 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 대의원회 1975. 3. 16. 12:00 전주 천주교회에서
참가자: 각 분당 교사회 회장, 및 대표 1명, 각 지구 연합회장 1명 참가비: 1인 100원 (겸집대)
5. 메아리 합창단 지도신부에 범석규 신부, 지휘자에 장동주 선생 성 음악에 뜻을 가진 젊은이의 참여바람 연습: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가톨릭센터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보좌 신부 박종삼
사도 회장 김영진

1. 판공성사: 3월 10일 오후 7시부터
2. 특별미사: 3월 10일 9시. 노동절을 위하여 연초제조장 신자를 위한 특별미사 있음
3. 성가 연습: 수요일 저녁 미사후, 토 오후 5시

(노송동)

전화 ④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 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 후
2. 사도회 임원 및 신축 위원장, 각 구역장, 반회장 연석 임사회: 저녁 7시 30분
3. 애령회 임원 월례회: 다음주일
성당 신축 현금에 감사드립니다.
중노 1가 배누시아: 1,000원 인후 1가 문 아가다: 1,000원 주계 2,000원 누계 1,888,417원
지난주 신축 성미: 2말, 누계 246.6되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아동 교리반을 위한 독지가 익명으로 케비넷 구입을 위한 2,000원 회사 (아동 교리시간): 주일 오후 3시
2. 중·고등생 학생 회장 선출
회장: 김진태 부회장: 윤석배
3. 전 교우들이 애령회원이 됩시다.
4. 성미 성금을 모아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5. 사순절은 회생과 극기의 시기
6.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 후

(북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부활판공: 12일 저녁 7-9시 (성사표) 10.11일 받아 가지기 바람
2. 성우회: 공식 미사 후
①지난주 성미: 1말 7되 누계 364.7되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분당 판공 성사: 3월 20일 저녁 7시
2. 성사표 발부 일정 16일: 1,2,3,4,5,6반 공무원 17일: 7,8,9,10,11반 18일: 12,13,14,15,16,17반 19일: 18반, 석구리, 삼천동, 기타
3. 14, 15일만 오후 미사 있음
4. 교구비 완납을 위해 교구금을 납부 합시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힘재

1. 전동 성당 건립 61주년 기념 추진 위원회(여자) 가톨릭 센터에서 3월 10일 오후 2시에
2. 성가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3. 유치원 개원식: 11일 오전 11시
4. 혼인 상담 위원회: 15일 7시30분
이현재, 이길용, 범창규, 장준수, 범권규, 강용애, 이상현, 엄익도, 김민극, 이경순, 주금동, 박태복, 이귀남, 석가회장, 사회부차장
5. 평신도 주일: 애령회 특별 현금 있음
6. 첫 영성체 교리반: 매일 오후 4시
7. 자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한 스테파노(규화) 등산 종교감 선생님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당	소식	봉헌금	지구	분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부신태인정	셋별 유치원 원아 모집	3,75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사도회, 부인회 월례회	35,960원
		신용조합 총회 성모회 월례회 부활 판공성사에 모두다 임함시다 신우회 월례회	16,205원			청년회 체육대회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25,403원
제 2 지구	대들울월명중합	교리반 취학 신입 부활판공은 빠짐없이 참석바람 어머니 성가대 발족 꾸리아 월례회 청년회 월례회	32,500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덕북서학동 전	연초 제조장을 위한 특별미사 사도회 신축위원 구역 반장연석회 애령회원이 됩시다! 성우회 고백성사에 모두다 임함시다 성가회 자모회 월례회	52,522원
			19,185원			13,250원	
제 3 지구	고금여	오월의 마돈나 꾸리아 회의	14,935원	제 5 지구	남부원주 장계안창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부활판공에 모두다 임함시다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10,445원
		신우회 월례회 성가 연습	9,500원			4,800원	
			3,230원				